

# 日전방위 노력 성과?...트럼프 “취임 전 이시바와 회동 가능”

### ‘취임 전 외국정상들 만나지 않겠다’ 입장서 선회 분위기 日, 아베 부인 면담·손정의 1천억달러 투자 등 관계 구축

일본이 내년 1월 취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구축 노력에서 잇달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취임 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동 가능성에 대해 “그들(일본)이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를 통해 이시바 총리에게 책과 기념품 등 선물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아키에 여사를 만났다.

그녀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 당선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아베 아키에 여사를 마라라고에서 다시 맞이해 영광이었다. 우리는 그녀의 작고한 남편인 아베 전 총리를 추모하고 그의 훌륭한 유산을 기렸다”고 적었다.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을 취임 전에 미국으로 찾아가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만났고, 이를 계기로 쌓은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밀월 관계를 구축했다.

이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트럼프 당선인과 취임 전 회동을 모색해왔다.

지난달에는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참석 후 미국에 들러 트럼프 당선인과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응해주지 않으면서 아직 회동은 성사되지 못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AFP=연합뉴스

에초 트럼프 당선인 측은 원칙적으로 내년 1월 취임 이전에는 외국 정상과 만나지 않기로 했다고 이시바 총리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아키에 여사와 면담, 기업 투자 등 일본 측의

‘전방위 접근’ 노력이 이어지면서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가 심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일 미국대사로 거론되는 조지 글래스 전 포르투갈 대사에 대해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라며 “우리는 일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1천억달러(143조6천억원) 규모 대미 투자계획 발표를 위해 기획됐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기자들과 각종 이슈 관련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면서 사실상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 모양새가 됐다.

일본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당선 결정되기 훨씬 전부터 관계 구축에 공을 들여온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때인 지난 4월23일(현지시간)에는 당시 집권 자민당 부총재를 맡고 있던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가 뉴욕 트럼프타워를 찾아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

아소 전 총리는 트럼프와 개인적 친분을 쌓은 아베가 총리로 재임 때 부총리를 역임하면서 정상회담에 배석했고, 두 정상의 골프 회동에도 동참했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이 회동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 들기’라는 해석이 당시 일본 언론에서 나왔다. /연합뉴스

## ‘사고 급증’ 전동킥보드...유럽서 강력 규제

### 이탈리아, 헬멧 착용 의무화...프랑스 파리·스페인 등 대역 금지도

한때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전동킥보드(사진)가 안전상의 문제로 유럽 각국의 규제를 받으면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헬멧 미착용 시 50유로(약 7만5천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단속된 시민들은 대부분 몰랐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도 최근 몇 년간 전동킥보드 사용이 급증했다.

주요 도시인 로마, 밀라노, 나폴리 등에서 교통 체증과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는 좁은 도로와 붐비는 교통 속

에서 이동을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도 함께 제기됐다.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급증했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교통사고 건수는 3천365건으로 2022년 2천923건에 비해 증가했다. 사고 사망자도 2022년 16명에서 지난해에는 21명으로 늘었다.

또한 도로와 인도를 가리지 않는 부적절한 주행 방식, 전동킥보드가 거리 곳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 미관을 훼손한다는 불만과 분노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헬멧 착용 의무화 외에도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최소 20유로(약 3만 원)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번호판 부착, 보험 가입 의무화 조



항은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시행 시점이 뒤로 미뤄졌다. 이탈리아 정부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라는 입장이지만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는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몰렸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헬멧을 장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도 대체 어디에 헬멧을 부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전동킥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지난해 주민투표를 통해 유럽 최초로 전동킥보드 대역을 금지했다. 스페인 마드리드도 지난 9월부터 같은 조치를 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극도로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전동킥보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 34세 ‘최고령’ 미스 프랑스 “30대, 최고의 나이”

### 참가자 나이 상한 폐지 세번째 대회만에 30대 우승자

미스 프랑스 선발대회가 참가자의 나이 상한을 폐지한 지 2년 만에 34세 최고령 우승자가 나왔다. (사진)

지난 16일(현지시간) 현지매체에 따르면 카리브해의 프랑스령 섬인 마르티니크 출신 항공사 승무원인 안젤리크 앙가르나-필로폰은 지난 14일 열린 대회에서 ‘2025년 미스 프랑스’로 뽑혔다. 1920년 시작된 이 미인대회는 24세 이하이고 미혼이며 출신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출전 자격 요건을 2022년 폐지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라는 입장이지만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는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몰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4개월째 전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 사망자가 4만5천명을 넘어섰다고 A FP 통신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

했다. 앙가르나-필로폰은 왕관을 쓰고 나서 “아마도 30대가 최고의 나인 것 같다”며 “20대 때는 내가 누구인지 고민

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고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직업이나 나라, 인생을 바꾸고 싶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받았는지 알면 놀랄 것”이라며 “절대로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스 프랑스는 일반 대중 투표와 여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로 결정



된다. 최근 미스네덜란드 선발대회가 폐지되는 등 미인대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으나 미스 프랑스 대회는 유지되고 있다. 올해 대회 결선에는 치과사 등 다양한 직업의 여성 30명이 진출해 수영복 심사, 지역 의상, 드레스 행진 등으로 우승자를 가렸다. 52세 여성도 도전했지만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 가자지구 전쟁 14개월째...사망자 4만5천명 넘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4개월째 전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 사망자가 4만5천명을 넘어섰다고 A FP 통신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

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해 10월7일 전쟁 발발 후 가자지구에서 4만528명이 숨지고 10만6천92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주장했다. 전쟁 이전 230만명 수준이었던 가자 전체 인구의 약 2%가 목숨을 잃은 셈이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마일 하니에, 야히야 신와르 등 하마스 지도자를 잇따라 살해한 후에도 잔당 소탕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 ASTRO

###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